

<안암병원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 의료기술직 간편화 부서 확대 재요청 ▲ 건강검진 시 암지표 검사 추가 요구

산안위는 안전과 건강을 논의해야 하는 자리



안암병원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가 26일 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박종훈 병원장은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어 노재옥 지부장은 “인증평가 하신느라 고생 많았다. 인증을 할 때 마다 홍역을 치르는 것 같다. 산안위는 직원안전과 위험을 예방하는 자리다. 병원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안전들을 가지고 논의해서 좋은 결과 만들자” 고 말했다.

병원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필요성 느껴, 의료원에 인력요청

우리지부는 논의안건 중 100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1명의 안전관리

자가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안암병원은 지난 과정에서 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후 의료원에 인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안전관리자 전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지켜져야 하는 법적 사항이기에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직원들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병원측에서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안전에 대한 논의를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및 보고사항과 논의한건에 대한 결과이다.

안건	노동조합 질의	병원 답변
노동조합 요청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건】 ① 집체 교육 하반기는 2019년 2월에 예정인 이유는 무엇인가? 집체교육은 원래 12월 말이 마감이다. 되도록 지켜졌으면 좋겠다. 【산업재해예방의 수립에 관한 건】 ① 직무상 요양 신청 사유 중 '본인실수' 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 ② 공상 처리된 직원은 없는가? ③ 주차침 자상에 대한 자료가 없다. ④ 차이가 없다고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① 회계연도가 2월이다 보니 그렇게 가고 있다. 7월에 했는데 또 하자니 평가가 겹쳐져서 시기를 2월로 한 것이다. ① 사고 시 원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 실수인지 확인해야한다. 노동부에 보내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고 기록을 하는 것이다. ② 종합적으로 3일 이하 처리 상태는 30여건 정도 된다. ③ 지난번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④ 알겠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건】 ① 일반 건강검진 총 인원이 2417명이라고 되어있는데 다 수검 받은 것인가? ② 다음에는 대상자와 수검자로 나눠서 기재해줬으면 좋겠다. ③ 특수 건강검진 수검자는 어떻게 되는가?	① 그 중 미수검자 19명이었다가 계속 독려 후 현재 5명 남아있다. 계속 진행 중이다. ② 알겠다. ③ 검사 대상자 1427명 중 미수검자는 3명이다.
	【간편복 병동 확대에 관한 건】	
지난 산안위		

이행점검 건	<p>① 구로와 안산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요구도 조사도 실시한다고 하는데 진행상황이 어떠한가?</p> <p>② 의료원 노사협의회에서 3개 병원 긍정적 답변을 전달했는데 의제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운영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p> <p>【간편화 부서 확대에 관한 건】</p> <p>① 외과 PA간호사들이 간편화를 지급 받지 못했다. 가능하도록 조치 해 달라.</p> <p>② 의기직도 간편화가 필요한 부서다. 확대 해달라.</p> <p>③ 간편화의 질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 조사를 통해 개선하자.</p> <p>【남자간호사 탈의 실 및 휴게실 설치에 관한 건】</p> <p>① 지난 산안위에서 간호부와 고민해서 탈의실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떠한가?</p>	<p>① 직원들이 좋아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의료원 차원에서 얘기해야 할 것 같다.</p> <p>② 얘기해보겠다.</p> <p>① 병원단위에서 시행하겠다.</p> <p>② 규정 검토를 해보아야하는데 만약 되는 것이면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시행하겠다.</p> <p>③ 질개선을 논의하기에 긴 얘이니 실무진에서 만나서 논의하자.</p> <p>① 새로운 공간이 없다. 2-3주 간격으로 건축팀과 회의를 하는데 그때 가능하도록 얘기해보겠다.</p>
근로자 유해 및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건	<p>【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건】</p> <p>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근로자 1,000명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1명의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p> <p>【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에 관한 건】</p> <p>① 병원사업장의 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다. 안전관리자 외에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여 병원 안전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안산은 사내명감이 선임되어 있고 구로는 사외명감이 선임되어 있다. 안암도 명감 선임을 했으면 좋겠다.</p> <p>【시설팀 통폐합과 관련한 유감 표명】</p> <p>① 시설팀 인력 중 휴가대치자가 부족해서 24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시설팀 전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p> <p>이와 관련해 실 통합 공사를 하면서 부서원들과의 논의나 동의 없이 진행되어 문제가 커진 것이다. 의료원 사무국장님, 경영관리실장님과도 얘기했지만 업무통합이 아니고 비정규직을 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나이트 근무시에 휴가자가 발생하면 다른 부서 직원에게 업무를 배우라고 하고 1월 10일자로 비정규직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정리해야 한다.</p> <p>② 관리자 선임시 부팀장에게 먼저 선임 하도록 한 것은 책임감을 가지지는 이유에서였다. 선임자격이 없는 부팀장을 보조관리자로 등록한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되면 부팀장이 일반직원에게 지도를 받고 보고하게 되는 지휘체계의 모순이 발생한다. 이 같은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p>	<p>① 의료원에 전담 안전관리자 추가에 대해 강력하게 요청했다. 다음주 중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p> <p>① 절차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니 먼저 확인해보겠다.</p> <p>① 병원에서 인력 감축이나 의도를 가지고 논의한 적은 없다. 그 방향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해서 진행하게 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다.</p>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건	<p>【신규직원 건강검진 개선에 관한 건】</p> <p>① 신규직원 입사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받는데 이 때 건강검진 비용을 신규 직원이 사비로 부담하고 있다. 이대, 경희대 서울대등은 검진비용을 사업주 측에서 낸다고 한다. 우리도 무료료 하자.</p> <p>【직원 건강검진 시 암 지표검사 추가에 관한 건】</p> <p>① 야간노동 및 환자스트레스로 인해 암 발병률이 높은 직원들을 위해 건강검진 시 암지표 검사를 추가하자.</p>	<p>① 데이터가 있어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조사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안암만 하기 어렵고 의료원에서 해야 할 안전으로 보인다.</p> <p>① 단위에서 하기보다는 의료원 차원으로 논의해야 가능할 것 같다. 또한 국가에서 진행하는 암검진 사업이 있는데 그 수검률이 낮다. 그 사업을 독려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p>
추가 논의 사항	<p>【진단검사의학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관련 】</p> <p>진단검사의학과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타 부서로 넘어가지 않도록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떠한가?</p>	<p>① 아직 설치되지 않아 시설팀에 의뢰한 상태이다.</p>